

# 일제시대 고등교육기관의 공간유형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Spatial Type of Campus  
Constructed in Japanese Period in Korea.

李榮漢 / (주)아키프렌종합건축사사무소  
by Lee, Young-Han

## 1. 예비적 고찰

### 1. 日帝의 教育統治政策

일제는 무단통치교육을 법제화한 朝鮮教育令에 기초하여 1911년 總督府令으로 보통학교, 고등보통학교, 여자고등보통학교, 전문학교를 기본으로 하는 植民地奴隸教育體系를 만들었다. 총독부는 1915년에 改定 私立學校 規則에서 전문학교를 설립하는 사립학교는 財團法人을 설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이 규칙의 적용으로 민족고등교육기관인 普成專門學校와 기독교계의 세브란스, 숭실, 이화 등은 교명을 바꾸고 各種學校로 격하되었다. 이들 학교는 기독교선교부나 사회독지가의 도움으로 재단을 설립하여 1917년에 延禧專門學校, 세브란스연합의학전문학교, 1921년에 보성전문학교, 1925년에 이화여자전문학교, 숭실전문학교로 하여 전문학교로 승격된다.

전 민족적인 3.1운동을 계기로 하여 식민지교육정책을 개편하기 위하여 1922년에 제2차 조선교육령이 개정공포된다. 이 령에는 조선에서 대학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명시되어 있었으며, 1924년 칙령으로 경성제국대학관계가 공포되었다. 1938년에 공포된 제3차 교육령은 內鮮一體의 교육통치이념을 강화하였으며 기독교학교에서 성경과목을 폐지하고 신사참배를 강요한다. 숭실전문학교는 이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폐교된다. 일제는 1943년에 제4차 조선교육령이라고 할 수 있는 교육에 관한

臨時非常措置令을 공포한다. 이 령의 주된 내용중에는 靑年訓練所를 재조직하고 군무예비훈련 및 전시생산대응연성시설을 고칠것, 제국대학의 예과는 문과의 정원을 줄이고 理工系의 정원을 늘일 것, 문과계 사립전문학교를 理工系로 전환시키고 나머지 문과전문학교는 통합할 것, 문과계 여자전문학교는 女子實務者 女子地方補導養成所機關으로 전환할 것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었다. 이 령의 내용은 그대로 고등교육기관에 시행된다.

## 2. 각 학교의 변천과정 및 건설과정

일제는 구한말에 설립된 관학을 일제의 통치하에 두고 일본인 학교나 친일적인 학교로 개편하는 한편, 한국내에 거주하는 일본인을 위하여 고등교육기관을 신설한다. 이에 반하여 구한말에 설립된 사립학교의 일부는 일제의 탄압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성장하여 고등교육기관이 된다. 이들의 대표적인 학교로는 연희전문, 이화여전, 숭실전문, 보성전문, 수원농전, 경성제대 등을 들 수 있다.

普成專門學校는 1915년에 사립 보성법률상업학교로 개칭되며 1922년에는 재단법인 보성전문학교가 된다. 1932년에는 재단법인 중앙학원에서 인수하고 1934년에 安岩里 신 캠퍼스로 이전한다. 안암리 캠퍼스 본관건물은 한국인 건축가와 한국인 자본에 의해서 세워진 대표적인 건물이다. 이 건물은 建築家 朴東鎭에 의해서 설계되었으며, 建築主人 金性洙의 영향력이 크게 작용하였다. 시공청부는 藤田幸二郎에 의해서 수행된다. 박동진은 '석조건축에 대하여 여러 방면으로 탐색연구하였다. 우선 材料의 적절한 用法과 構造의 合理 등은 建物과 自然의 調和, 그 構造와 材料美의 一致의 形式을 강조했었다.' 하였다. 구조는 철근콘크리트로 하였으며 외벽을 석조로 마감하였다.

梨花學堂은 1908년 중등과 이외에 보통과, 고등과를 설치하다가 1910년에 대학과를 설치한다. 1917년에는 중등과를 대학예과로 개편하며, 1925년에는 대학과와 대학예과를 이화여자전문학교로 개편하며, 1929년에 이화여고보와 완전히 분리된다. 전문학교는 1935년 신촌 신교사로 이전한다. 이화학당은 1918년부터 신교사를 지을 대지를 물색하여 신촌대지를 이화여전의 신 캠퍼스로 결정한다. 1935년에 파이퍼홀, 케이스홀, 체육관의 현당식이 있었으며 석조 2,3층으로 되어 있었다. 건축설계는 W. M. Vories & Co.에서 수행되었으며 시공청부는 馬鍾濤, 王公溫이 담당하였다. 보리스사무소에서는

본 캠퍼스의 마스터플랜을 작성하였다.

사립 연희전문은 1917년에 설립되며, 경기도 고양군 연희면 창천리의 숲이 울창한 토지 2십9만3백이십평을 매입하여 신 캠퍼스를 건설한다. 1920~25년에 걸쳐서 스팀스홀, 언더우드홀, 아펜젤러홀이 석조 3층의 동일한 양식으로 준공된다. 이 캠퍼스의 건축가인 미국건축가 H.Killiam Murphy는 교지의 측량, 관리, 학교건물의 설계를 도맡았다.

숭실대학은 1912년 총독부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았으나 1925년 문과에 한하여 숭실전문학교로 개편된다. 숭실학당은 1907년 格物學堂(Science Hall)을 지상 2층과 지하 1층의 벽돌 양옥건물로 준공하며 이는 당시 평양성 중에서 최대의 벽돌건물이었다 한다. 1912년에 3층의 벽돌조양옥을 준공하여 대학에과건물로 사용한다. 이 건물을 설계한 裴緯良은 숭실학당의 설립자로, 그는 설계할 때 건축양식이 한국식 건축으로 세워져서는 아니되겠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지붕만은 아름다운 曲線美를 보인 한국식 기와지붕으로 꾸밀 것을 구상하였다. 1926년에 건축중이던 과학관은 지상 4층의 양식건물로서 미국인 D. L. Soltan이 설계하였고 중국인 慕文序가 시공청부하였다.

農林學校는 1906년 농상공부소관 농림학교 관제에 의거하여 설립되었으며, 1907년에 수원으로 이전한다. 1918년 이 학교는 수원농림전문학교가 되고 1922년에는 수원고등농림학교로 승격개편된다.

경성제대예과는 1924년 청량리에서 개교된다. 본관교사는 1923년에 적멸동 3층으로 준공되며 근세부흥식 외관으로 이루어졌다. 강당, 기숙사, 도서관 등은 본관 후면에 위치하여 이듬해 준공된다.

경성제대 법문학부 및 의학부는 1926년에 동승동, 연건동에 자리잡게 되며, 1931년까지 중요한 건물들이 준공된다. 이 건물들은 3, 4층으로 철근콘크리트구조로 되어 있으며 평지붕을 하고 있다.

### 3. 학교시설 관련 설계조직의 특성

일제시대에 사학은 개인설계사무소에 의해서 설계되었으며, 관학 건물은 총독부 건축조직에 의해서 설계·감독되었다. 한국인이 설립한 사학은 한국인 건축가에 의해서 설계되고, 미국계 선교사에 의해서 설립된 사학건물은 미국인 건축가에 의해서 설계된다. 이 시기에 한국의 대표적인 건축가인 박길용, 박동진은 해화전문 본관, 대동공업전문 본관 및 교사, 그리고 보성전문 본관 및 도서관을 설계한다. 이화여전 신촌캠퍼스를 설계한 Vories건축사무소는 미국인, 일본인, 한국인 건축가

〈표-1〉 각 캠퍼스의 건설과정

學校 캠퍼스名	竣工建物名	
普成專門	塽洞	校舍(14)
	安岩里	本館(34), 圖書館(37)
惠化專門	明倫洞	本館(27)
中央保育學校	黑石洞	영신관(37), 附屬建物(38)
세브란스醫專	桃洞	세브란스病院(04), 校舍(12), 病理解剖室(28), 齒科教室 및 大手術室(31), 基礎醫學教室(34), 解剖學 및 病理解剖室(35)
延禧專門	滄川里	치원관(18), 學館(23), 理學館(24), 本館(25), 寄宿舍(28)
梨花女專	貞洞	韓屋校舍(1886), 메인홀(1899), 심프슨홀(15), 幼稚園(21), 프라이홀(22)
	北阿峴里	本館(35), 音樂館(35), 體育館(35), 講堂(35), 保育館(36)
崇實專門	平壤	韓屋校舍(01), 科學館(06), 大學本館(12), 理學館(26년 建設中)
水原高農	水原	校舍(06), 寄宿舍(06), 生徒實習室(07), 寄宿舍(07), 寄宿舍(13), 寄宿舍(18), 動植物實驗室(21), 化學實驗室(21), 寄宿舍(22), 食堂(22), 寄宿舍(27), 記念會館(33), 本館(38), 第1, 2校舍(38)
京城法專	清涼里	本館(38)
京城帝大	東崇洞	法文學部 本館(28), 圖書館(28), 本部(31)
	蓮建洞	醫化學教室(26), 病理解剖學教室(26), 醫學部 本館(28), 醫學部 研究室(30)
	清涼里	豫科 本館(23), 特別教室(23), 特別教室(24), 寄宿舍(24), 雨天體操場(36), 生徒集會所(36)
	孔陵里	第1, 2, 3號館(42), 第4號館(41)
	開城	生藥研究所(37)

〈표-2〉

연도	05	10	15	20	25	30	35	40	45
梨花學堂(10) 大學科 設置 貞洞									
大學豫科(17) 設置									
梨花女子(25) 專門學校									
梨花女專女子靑少年(43) 練成所指導者養成所 新촌(35)									
崇實大學(08) 設置 平壤									
崇實(25) 專門學校									
閉校(38)									
세브란스(09) 醫學校 道동									
세브란스(13) 聯合醫學校									
세브란스(17) 醫學專門學校									
旭醫學(42) 專門學校									
延禧專門(17) 學校 창천리(18)									
普成學校									
普成法律(15) 商業學校									
普成(22) 專門學校									
京城拓植(44) 經濟專門學校									
전동									
낙원동(18)									
송현동(22)									
안암리(34)									
佛敎(07) 師範學校									
佛敎(15) 中央學校									
閉校(19)									
佛敎(28) 傳受學校									
中央佛敎(30) 專門學校									
혜화(40) 專門學校									
拓植(44) 經濟專門學校									
中央保育(28) 學校									
鐵道學校(44)									
정릉(28)									
창신동(32)									
혹석리(36)									

등에 의해서 운영되었으며 한국에서는 149건의 설계를 하였다. 이 사무소는 한국에서 1930년대에 가장 왕성하게 활동하였으며, 이화여전 신촌캠퍼스의 마스터플랜과 교사는 그의 대표적인 작품이다. 이 사무소는 이화여전 설계를 목적으로 Vories 건축사무소 서울출장소를 종로에 개소하였으며, 설계하는 건물의 유형에 따라서 평면과 입면에서 일정한 형식이 있어서 교회와 학교는 고딕양식이나 로마네스크양식으로 설계된다.

통감부 탁지부 건축소, 총독부 영선과, 건축과, 영선계는 관에서 발주하는 교육시설을 설계 및 시공감독하였으며 그 예로는 공업전습소, 경성제대, 수원농림학교의 여러 건물들을 들 수 있다. 이 관청 건축조직은 초기의 직원을 일본 대장성 건축부 출신으로 하였다거나, 총독부내 소속을 총독의 직속부서인 관방에 소속된 사실에서 일본제국주의의 영향을 받고 있었으며 조선총독의 통치이념을 충실히 반영하였을 것이다. 또한 총독부내 기술직원의 직제는 철저한 계급적인 위계인 기사-기수-용으로 이루어졌으며 출신학교에 따라서 현격한 차이를 두고 있었으며 특히 한국인에게는 차별이 심했다. 이러한 계급적인 특징은 건축설계에 있어서 창조적인 사고를 박탈하고 보수적이고 건실한 건축을 추구하게 하였을 것이다. 건축조직내 인력구성엔 일본인과 한국인으로 되어 있으나 일의 주도는 일본인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1920년대에 학교건축설계를 주도한 기사는 岩槻善之로 경성제대의 중요한 건물에 관여하였으며, 시공분야에서 아스팔트에 대한 연구 특히 浸入度와 熔融點에 관심이 많았다.

## 2. 立地類型의 分析

### 1. 各 학교의 입지분석

보성법률상업학교는 1918년 博洞에서 樂園洞으로 이전하며 1922년에 松峴洞 교사로 이전한다. 그후 東大門外 安岩里에 신캠퍼스를 건설하고 1934년에

이전한다. 전동교사와 송현동 교사는 교사를 신축하고 이전하였으며, 낙원동에서는 기존건물을 사용하였다. 고양군 안암리에 6,500평의 교지를 확보하고 신캠퍼스를 조성한다. 이곳은 풍수적으로 吉地로 소문이 나 있었으며 그 당시에는 소나무가 듬성 듬성있었다고 한다.

연희전문학교는 1918년 경성부의 연희면 창천리의 울창한 숲 2십9만3백이십평에 신캠퍼스를 건설한다. 이 지역의 지세는 풍수적으로 明堂자리이며 조선의 개국초에 母岳主山論이 나올 정도였으며 그 후에는 延禧宮을 세우기도 하였다. 이곳에는 여러유적이 위치하였으며, 수정원은 본교입구의 오른쪽에 자리잡고 있었던 원묘의 일대로 영조의 후궁이자 사도세자의 生母인 영빈 李氏의 原廟이었다. 학교측은 교지를 매입할 당시 이 무덤을 국가의 유적지로 보존하기로 동의하였다.

이화여전 연희면 北阿峴리캠퍼스는 산 밑 언덕에 송림이 ㅼㅼㅼㅼ 우거져서 발을 들여놓을 수 없을 정도였으며 연희전문으로 넘어가는 허리띠만한 길이 겨우 있었다고 한다. 이곳은 원래가 정조의 후궁인 尹氏의 묘인 和嬪宮의 능터였으며, 이곳은 지금의 도서관 서북방의 일대였다.

경성제대 예과는 동대문의 경기도 고양군 청량리 영희원입구 동측에 위치하며 송림이 울창하고 淸涼寺 등 절들이 있어서 피서지로서의 역할을 하던 곳이었다고 한다. 이곳에는 1899년부터 종로통에서 郊外電車(동대문~청량리)가 운행되었으며, 京元線의 출발지로서 교통이 편리하였다. 경성제대는 신 캠퍼스의 부지로 노량진, 영등포, 청량리 등이 물망에 올랐으며 최종적으로 동승동과 연건동 일대로 결정하였다. 이 부근 일대는 대부분 菜麻田이요, 종로 5가에서 새로 개교한 대학까지는 발뚎사이에 희미한 小路가 있었다. 법문학부는 이화동의 경성공업전문학교 북측에 인접하여 설치되며, 의학부는 연건동 총독부병원 동쪽 동승동캠퍼스 서측에 세워진다.

### 2. 도시구조적 입지유형 분석

한성부 성내의 동부에 있는 東崇洞, 梨化洞, 明倫洞, 蓮建洞에는 경성고궁, 혜화전문, 경성고상, 경성제대 법문학부 및 의학부 등이 입지하여 본격적인 대학촌을 형성한다. 경성부의 동부지역에 있는 청량리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에는 경성제대 예과, 보성전문, 경성법전 등이 입지하며 경성부의 서부지역에 있는 신촌지역은 20년대에 연희전문이 입지하고 30년대에 이화여전이 입지하여 사학의 대학촌으로 자리잡게 된다. 한편 구한말에 학교들이 집중적으로 위치하던 中部에는 일제시대 후반기가

〈표-3〉 각 학교 캠퍼스의 立地向

立地向	學校 캠퍼스名	前面道路向	地形向
南	수원농림학교 수원 캠퍼스	남-북	평지
	연희전문 창천리 캠퍼스	불규칙	남향 경사
南東	경성제대 예과 청량리 캠퍼스	남서-북동	평지
	보성전문 안암리 캠퍼스	남서-북동	남동향 경사
南西	경성제대 이공학부 공릉리 캠퍼스	북서-동남	남서향 경사지
	이화여전 북아현리 캠퍼스	불규칙	남서향 경사지
東	경성제대 의학부 연건동 캠퍼스	남-북	평지
西	경성제대 법문학부 동승동 캠퍼스	남-북	평지

되면 이곳에 입지하는 고등교육기관은 없게 된다. 도심부에 남아있던 이화여전은 1933년에 신촌으로, 보성전문은 1934년에 안암리로, 경성법전은 1937년에 청량리로 이전한다.

1930년대가 되면 경성부의 구역이 대폭 확장하게 된다. 1930년에는 경성부 최초의 도시계획이 성안되며 1936년에 도시계획에 거의 그대로 반영된다. 이로써 경성부 도시계획구역이 확장되어 경성부 지역의 3배가 되는 경성부외의 지역이 경성부구역으로 편입된다. 이때 경성부로 편입된 구역에서 철도역이나 시내전철역이 위치하는 지역으로 30년대에 많은 고등교육기관이 이전하며 경기도 고양군 연희면 신촌지역과 송인면 청량리가 이에 해당된다.

### 3. 立地向

연희전문 창천리캠퍼스, 이화여전 북아현리캠퍼스, 보성전문 안암리캠퍼스 등은 남동향, 남서향, 남향으로 입지하였으며, 특히 남향을 선호하여 입지를 선정하였다. 이들 장소는 불규칙한 진입도로에 의해서 진입되며 남향이나 남동향, 남서향 경사지형으로 이루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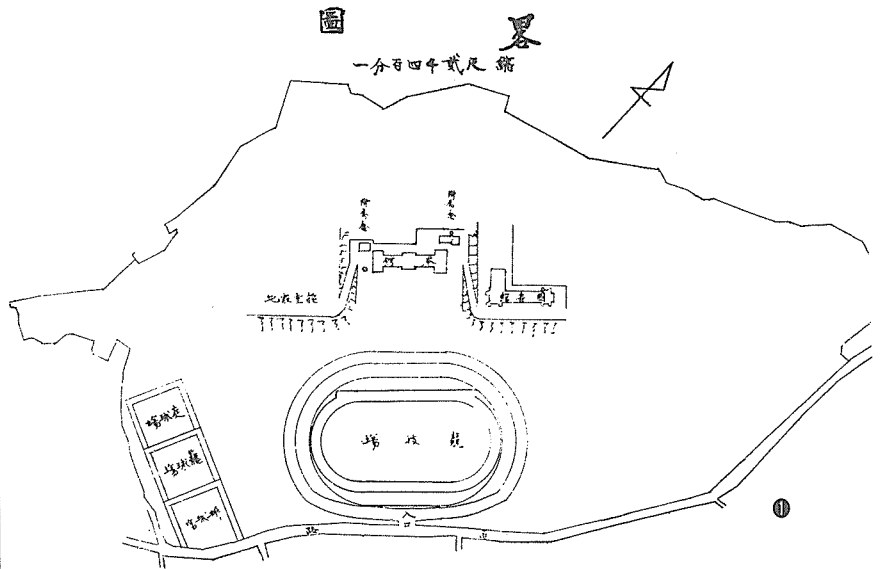
일본인학교는 동향이나 서향을 한 캠퍼스가 남향으로 된 캠퍼스보다 많다. 동향이나 서향으로 입지하는 학교로는 경성제대 의학부, 법문학부 캠퍼스가 있다. 이들 캠퍼스는 평지로 되어 있고 학교대지의 전면에 남북으로 관통하는 전면도로가 있어서 이를 기준으로 하여 입지하여 결국 동향이나 서향으로 입지하게 되었다.

### 3. 배치유형의 분석

#### 1. 각 캠퍼스의 배치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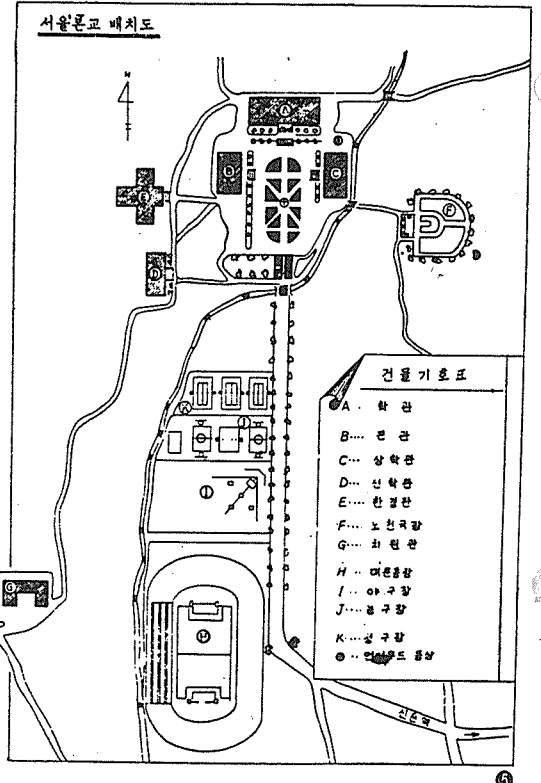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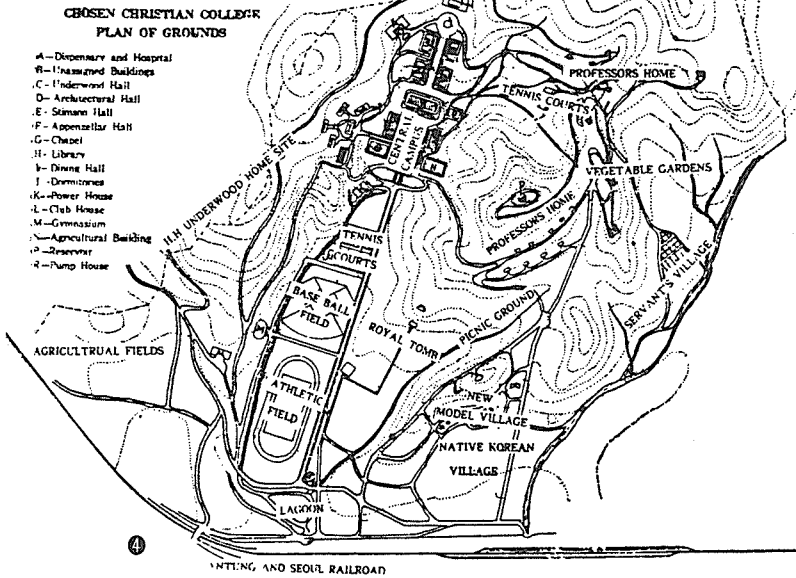
보성전문 안암리캠퍼스는 남동경사면에 위치하여 남동향으로 배치된다. 본관이 건립된 곳은 좌우로 뻗힌 구릉에 쌓인 峽谷이었으며, 지금 仁村동상이 세워진 곳까지 상당히 깊은 저지대였는데 주변 산을 무너뜨려 매꾸어서 높게 만들었다. 본관은 전 캠퍼스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하며 뒷산의 主脈이 동남측으로 뻗어내리는 능선위에 위치한다. 본관을 기준축으로 하여 전면에 운동장, 정문이 위치하며, 본관 좌우측에 도서관과 강당을 계획하였으나 강당은 세워지지 않았다.

이 캠퍼스는 정문-운동장-본관을 축으로 하여 배치되었으며 모든 배치의 기준은 본관이었으며 본관이 위치하는 곳은 흙을 매꾸어서 축의 Terminal을 강조한다. 그리고 본관의 위치 및 향은 지세에 의해서 결정된다.



연희면 滄川리캠퍼스는 뒤로는 모악의 주봉이 반치고 있고 주봉으로부터 내외로 이중의 구릉이 내려뻗은 중심에 위치한다. 초기의 마스터플랜을 보면 중앙계곡에 중심도로를 두고 위쪽에 중심건물을 배치하고 아래쪽에 운동장을 위치시켰다. 진입로는 호수를 옆에 끼고 돌아서 조성되어 있고 주변 산기슭에는 교수사택은 배치하였다. 이러한 마스터플랜에 의거하여 캠퍼스배치가 이루어진다. 전체 캠퍼스의 중심축인 백양로를 기준으로 하여 종점부에는 학관건물을 배치시키고 그 좌우에 서로 대칭으로 본관과 상학관을 배치하며, 이들 전면에 좌우대칭되는 위치에 한경관과 노천극장을 배치한다. 이 캠퍼스는 백양로를 중심으로 종점부에는 ㄷ자형으로 중심적인 건물을 배치하고 캠퍼스가 확장함에 따라 후면으로 건물을 병렬형으로 배치하도록 한다.

- ① 보성전문 안암리캠퍼스의 배치계획도
- ② 보성전문 안암리캠퍼스의 지형적 입지
- ③ 연희전문 창천리 캠퍼스(A) 및 이화여전 북아현리 캠퍼스(B)의 지형적인 입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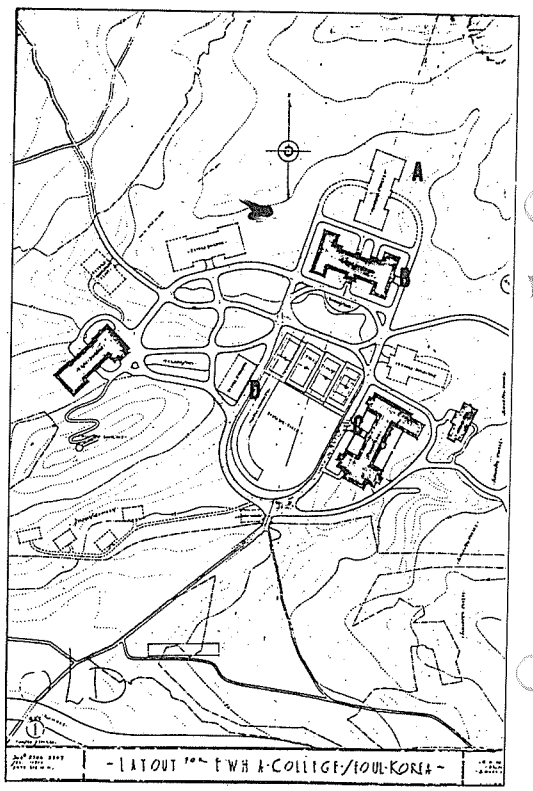
- ④ 연희전문 창천리캠퍼스의 배치계획도
- ⑤ 연희전문 창천리캠퍼스 배치도
- ⑥ 이화여전 북아현리캠퍼스 배치계획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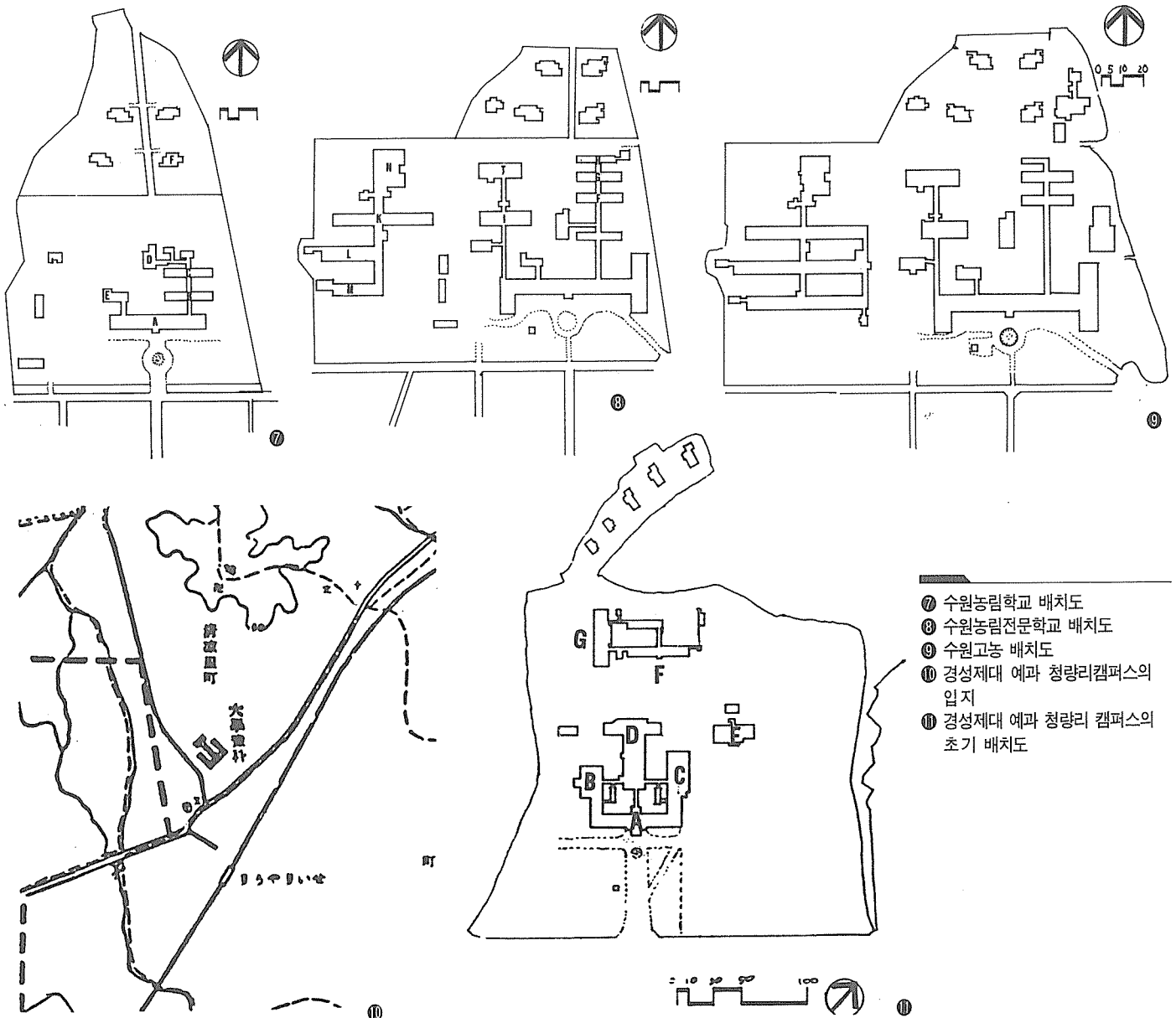
이화여전 북아현리캠퍼스는 마스터플랜을 근간으로 하여 각 건물을 배치한다. 마스터플랜에는 정문과 캠퍼스 뒷산의 주봉을 잇는 축상에 중심적인 건물(A, B)를 배치하고 그 전면에 운동장을 위치시켰다. 운동장 좌우에는 건물 C, D를 서로 대응되게 배치하고 나머지 건물들은 지형에 맞게 배치한다. 1935년에 건설된 캠퍼스는 이 마스터플랜을 골격으로 하여 형성되었다. 정문을 들어가면 운동장이 있고 그 위에 본관인 파이퍼홀이 있고 제일 후면에 기숙사를 배치하며 주변 산기슭에 관사를 배치하였다. 운동장 좌우에는 체육관과 음악관을 서로 마주보게 배치하였다. 이 캠퍼스는 정문-운동장-본관-기숙사-산을 종적인 축으로 하여 지형에 적응하여 융통성있게 배치한다.

수원농림학교는 1906년 수원에 교사, 기숙사, 관사를 준공하고 이전한다. 지형은 평탄면으로 되어 있으며, 정남향으로 배치되었다. 건물의 구성은 교사동, 기숙사 2동, 식당, 변소, 욕실, 숙직실 및 小事實, 관사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건물의 배치는 정문을 들어서면 남향의 교사동(A)이 있고 그 후면에는 숙직실(E)과 기숙사동(B, C)이 있고 그 뒤로 식당동(D), 변소동과 욕실동이 배치되어 있다. 그리고 정문과 교사동의 주출입구를 연결하는 남북축 선상의 중간지점에 원형의 녹지를 두고 있다. 복도는 모든 건물을 연결하고 있으며 본관을 중심으로 대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건물 후면에는 울타리를 사이에 두고 관사동들이 단독주택형식으로 배치되어 있다.

1907~1912년에 걸쳐서 도서관, 기숙사, 강당, 계단교실이 증축되는데 기숙사(F)는 기존 기숙사동 후면에 기존 기숙사동과 같은 형태로 배치되며,

그외의 실들은 본관 교사동 좌우로 확장하여 배치된다. 교사동은 H字型과 유사한 평면이 된다. 1913~18년에 기숙사 2동이 추가로 건축되는데 기숙사 K동은 기존 캠퍼스의 서측대지에 남향으로 배치된다. 1921년에 교사동의 북측에 동물실험실(I)과 화학실험실(J)이 20년대에 걸쳐서





- ⑦ 수원농림학교 배치도
- ⑧ 수원농림전문학교 배치도
- ⑨ 수원고농 배치도
- ⑩ 경성제대 예과 청량리캠퍼스의 입지
- ⑪ 경성제대 예과 청량리 캠퍼스의 초기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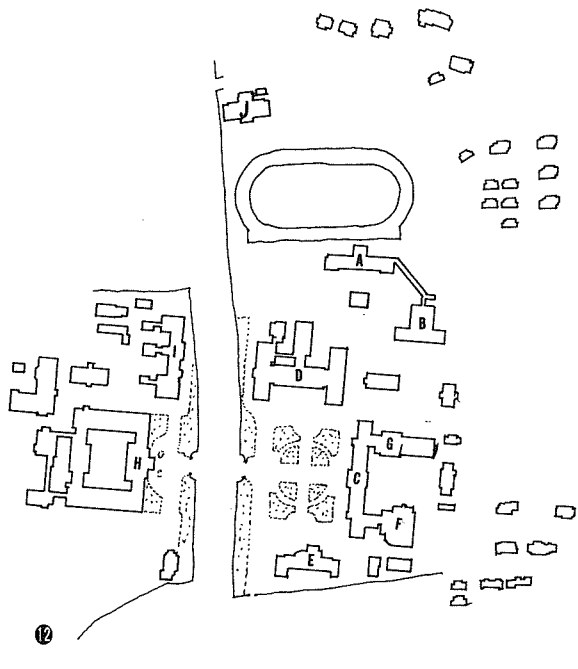
서측대지에 신기숙사동(L, M)이 증축된다.

1935년경이 되면 교사동의 북측에 도서관건물이 별동으로 신축되며, 캠퍼스 서측에서 신기숙사동의 배치가 완결된다. 신기숙사동의 북측에는 취사장과 식당동이 위치한다. 1937년에 본관을 신축하게 되고 초기의 기숙사자리에 제 1, 2교사가 들어서고 기존의 강당은 그대로 존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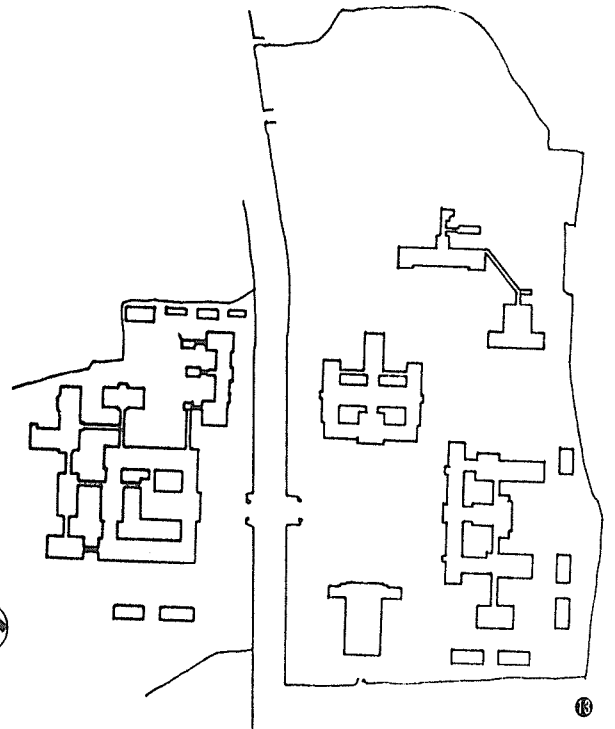
수원농림학교 캠퍼스는 1906년에 기본 골격이 형성되며 20년대를 거치면서 변화하기 시작하여 30년대가 되면 새로운 캠퍼스로 완성된다. 즉 초기의 캠퍼스는 정문을 기준으로 하여 남북축상 교사동-기숙사-관사를 배치하였는데 30년대가 되면 초기에 지은 건물을 헐어내고 새로이 캠퍼스를 확장하여 동서축을 주축으로 하여 정문-본관 및 기숙사동을 배치한다. 이렇게 배치의 기본향은

변화하였지만 건물의 기능별 위계에 따른 배치는 변화하지 않았으며 각 건물은 정확하게 직교좌표에 의해서 배치되게 된다. 이 캠퍼스는 일제의 한국지배 초기부터 일제말기까지 성장하였고, 순수한 교육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일제 관학 캠퍼스의 대표적인 배치를 보여주고 있다.

경성제대 예과 청량리캠퍼스는 청량리역 앞에 동북쪽으로 지나가는 도로에 면하여 위치하고 있다. 캠퍼스의 전면부에는 본관, 교사동, 生徒控所, 강당을 배치하고, 후면에는 기숙사와 관사동이 배치되었다. 운동장은 캠퍼스의 우측부에 위치시켰다. 본관을 전면도로와 평행하게 배치하고 전면도로상의 정문과 마주보는 곳에 본관 주출입구를 위치시켰다. 정문과 주출입구상에 원형녹지를 조성하고 이 축상의 왼편에 奉安所를 위치시켰다.



12



16

- 12 경성제대 법문학부 및 의학부 캠퍼스 배치계획도
- 16 경성제대 법문학부 및 의학부 배치도

본관(A) 뒷쪽에는 생도공소(C)와 강당(B)의 건물을 본관 양측에 직접 붙여서 지었으며 특별교실(D)을 T字型으로 하여 본관 중앙 후면에 위치시켰다. 운동장 뒤쪽에는 무도관(E)을 위치하게 하였고 기숙사(F)와 연결하여 식당동(G)을 배치하였다.

1930년대에 들어서면서 트랙, 체조장, 생도집회소, 도서관 등이 신축되지만 초기의 배치개념안에서 성장하게 된다.

경성제대 법문학부와 의학부 캠퍼스는 남북을 관통하는 도로를 사이에 두고 배치된다. 배치계획도에는 전면도로를 중심으로 하여 주요건물들이 좌우대칭으로 배치되고 있다. 의학부와 법문학부 캠퍼스는 정문을 서로 마주보게 하였으며, 주 건물인 의학부 본관, 법문학부 본관, 도서관 및 연구실, 본부건물이 서로 좌우대칭으로 배치되었다. 이러한 배치개념은 실행과정에서 약간의 변경은 있었지만 기본적으로는 그대로 고수된다.

법문학부는 이전에 있던 경기상업학교 교사(A)를 이용하고 그 남측에 가교사(B)를 짓고 본부와 교사로 사용한다. 의학부는 병리학교실과 의화학교실(I)을 1926년에 완공하고 개교한다. 의학부 및 법문학부 본관(H, C)은 도로측과 평행하게 위치하고 두 건물의 중심축을 일치시켰다. 법문학부의 본관 좌측에는 연구실과 도서관(D)을 배치시키고 우측에는 경성제대 본부(E)를 배치한다. 법문학부 본관 두에는 심리학교실(G)과 강당(F)이 위치하며, 운동장은 법문학부 교사 북측에 위치시켰다. 관사들은 낙산의 서측 기슭에 배치한다.

## 2. 기능배치의 유형분석

캠퍼스를 구성하는 건물의 기능은 각 학교의

교육이념 및 캠퍼스 규모 등에 의하여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정문, 운동장, 본관, 교사, 도서관, 강당, 기숙사, 관사 중에서 선택적으로 이루어진다.

이화여전 북아현리캠퍼스와 연희전문 창천리캠퍼스는 정문 - 운동장 - 교사 및 기숙사 - 관사 순으로 각 기능을 배치하고, 집회소나 체육관을 설치하였다. 이들 학교는 학문·교육의 기능과 더불어 생활·주거·침식의 기능을 수용하여 공동체적인 사회를 이루게 하였다.

보성전문 안암리캠퍼스는 본관, 교사, 도서관을 우선적으로 수용하고 생활기능을 수용하지 않아서 캠퍼스공간에서 학문과 교육기능을 중시한 것을 알 수 있다.

일본인 학교들은 특이한 기능배치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들 캠퍼스는 정문 - 봉안소 - 원형녹지 - 본관 - 교사 - 기숙사 - 관사 순으로 각 기능을 배치하였다. 정문과 본관 사이에는 봉안소를 설치하고 녹지공간을 두었으며, 이 공간은 전체 캠퍼스에서 가장 핵심적인 공간으로서 일본천왕에 대하여 충성을 맹세하는 공간이었다. 또한 학문과 교육을 중시하고 학생들의 과외 활동을 등한시하여 학생의 공적인 생활공간인 생도공소, 식당은 캠퍼스의 중심에서 벗어난 위치에 자리잡는다.

## 3. 배치기준의 유형분석

캠퍼스 배치의 기준인 배치의 기준점과 배치축은 정문이나 캠퍼스를 받치고 있는 지형에 의해서 결정된다.

연희전문 캠퍼스, 이화여전 캠퍼스, 보성전문 캠퍼스는 경사지에 위치하여 지형적 조건을 고려하여

배치의 기준을 설정한다. 배치의 기준은 캠퍼스의 가장 중요한 건물을 어느곳에 어느향으로 앉히느냐가 중요하였으며, 캠퍼스를 받치고 있는 뒷산의 주봉에서 내리뻗어서 캠퍼스로 발전하는 능선상에서 전 캠퍼스를 관조할 수 있는 곳에 본관을 위치시켰다. 여기에서 본관의 위치가 캠퍼스 배치의 기준점이며, 본관이 전 캠퍼스를 볼 수 있도록 배치향을 결정하여 배치의 기준축이 되었다.

일본인 학교는 전면도로와 정문을 고려하여 배치의 기준이 결정되었다. 배치기준점은 정문이었으며 정문을 기준으로 하여 각 건물의 위치에 따라 배치된다. 배치의 기준축은 전면도로에 의해서 결정된다. 캠퍼스내의 중요한 건물은 전면도로와 수직 또는 수평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본관은 항상 전면도로와 평행관계를 보여준다. 즉 배치의 기준축은 전면도로상에 위치하는 정문에서 전면도로축과 직교하는 종축이다.

#### 4. ब्ल럭배치의 유형분석

이화여전 캠퍼스, 연희전문 캠퍼스는 튼 ㄷ자형과 분산형으로 ब्ल럭배치되었다. 이들 캠퍼스는 캠퍼스 중심에 중앙도로나 운동장을 배치하고 그 상부에 가장 중요한 건물을 위치시키고 그 좌우에 건물을 병립하여 배치한다. 이러한 건물들은 전면에 있는 전정을 중심으로 하여 공간구성되며 건물의 매스에서 서로 균형을 이루도록 하고 있다.

일본인 학교는 단독형과 병렬형으로 배치된다. 우선 가장 중요한 건물인 본관을 캠퍼스의 전면에 배치하여 독보적인 매스로 처리하고 교사동이나 기숙사동은 같은 크기로 병렬로 배치한다. 이들 병렬배치의 축은 단독형인 본관의 축에 지배를 받게 된다. 또한 이들 캠퍼스 공간구성의 골격은 중정이나 전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직교좌표로 이루어진 복도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 4. 맺음말

일제시대에 건설된 캠퍼스는 서로 다른 뿌리를 가진 두개의 캠퍼스 타입이 병존하였다. 기독교계 사학 및 민족사학의 캠퍼스는 남향으로 되어있는 背山형 대지에 입지하여 교지의 지리적인 잠재력을 살려서 캠퍼스를 배치하였다. 배치의 기준이 되는 기준점과 기준축이 지세에 의해서 결정되었으며, 전정을 중심으로 하여 튼 ㄷ자형으로 건물을 배치한다. 이에 반하여 일본인 학교 캠퍼스는 전면에 주요도로가 있거나 철도역에 근접하고 있는 요지에 입지하였다. 배치의 축은 일정한 방위를 보여주지 못하고 전면도로의 향에 종속되었으며, 정문을

〈표-4〉 일제시기 각 학교의 기능배치

학교 캠퍼스명	기능배치
연희전문 창천리	<pre> 교사   정문-----본관-----관사   운동장, 기숙사   교사           </pre>
보성전문 안암리	<pre> 정문-----운동장-----본관   도서관           </pre>
이화여전 북아현리	<pre> 교사   정문-----운동장-----본관-----기숙사-----관사   교사           </pre>
경성법전 광화문	<pre> 정문-----본관-----마당-----교사   마당           </pre> <p style="text-align: right;">연무장   → 정문-----마당-----본관   교사</p>
수원고농 수원	<pre> 정문-----본관-----기숙사, 식당-----관사   정문-----본관-----교사, 도서관-----관사   봉안소   기숙사, 식당           </pre>
경성제대 예과 청량리	<pre> 정문-----본관-----강당, 교사-----기숙사-----관사   봉안소, 운동장   정문-----본관-----강당, 교사, 체육관-----기숙사-----관사   봉안소, 운동장   도서관           </pre> <p style="text-align: right;">그라운드</p>
경성제대 법문학부 동숭동	<pre> 도서관, 연구실   정문-----본관-----교사, 강당-----관사   본부   운동장, 체조장           </pre>
경성제대 의학부 연건동	<pre> 정문-----본관-----교사-----연구실   학생공실           </pre>
경성제대 이공학부 공릉리	<pre> 운동장   정문-----교사   교사   교사           </pre>

기준점으로 하였다. 각 건물은 복도에 의해서 연결되며 단독형이나 병렬형으로 ब्ल럭배치되었다.

이와같이 기독교계, 민족계 사학 캠퍼스는 풍수적으로 吉地(길지)이며 넓은 캠퍼스로 성장할 수 있는 장소를 택하여 자연지세를 순응하여 배치하고 있어 교육환경의 조성에 역점을 두었으나, 일본인 학교 캠퍼스는 캠퍼스를 효율적으로 관리, 통제할 수 있도록 입지선정 및 공간배치를 하였다.

#### ■ 참고문헌

- 1) 경성제대일람, 1926, 27, 37, 42, 43
- 2) 경성제대에과일람, 1924, 27
- 3) 보성전문학교일람, 1931, 36
- 4) 수원고등농림학교일람, 1923, 30, 31, 34, 36
- 5) 연세대학교 100년사 편찬위원회, 연세대학교 100년사, 1985
- 6) 이화 80년사 편찬위원회, 이화 80년사, 1967
- 7) 손정목, 일제강점기 도시계획연구, 일지사, 1990
- 8) 고 윤일주교수추모논문집, 편찬위원회 편, 한국근대건축사연구
- 9) 김정동, 한국근대건축의 재조명 (1)~(15), 건축사, 1987.5~1988.2